

노동조합 중앙본부 인사개편 단행

조직 긴장감 높아 15대 사업 완성...신임 간부 등 임명장 수여



KT 노동조합은 11월 26일(수), 중앙본부 인사개편을 단행하고 신임 간부 등에 임명장을 수여했다.

이는 한달 앞으로 다가온 노동조합 15대 집행부 3년차를 준비하기 위한 것으로 조직의 긴장감을 높이고 각 국별 사업내용을 전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노동조합은 이번 인선을 통해 조직 정비와 발전 동력을 재고할 방침이다.

김인관 위원장은 신임 간부 임명과 관련해 “노동조합의 한 가족이 된 신임 중앙간부는 하루 빨리 업무와 사업을 숙지하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하며 “앞으로 젊은 조합간부들의 활약이 중요한 만큼 맡은 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줄 것을 믿고 기대한다”고 밝혔다.

위원장은 계속해서 “조합간부, 특히 중앙간부는 무거운 책임감과 철저한 준비성을 갖추어 15대 집행부 사업 하나하나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진행해야 한다”며 “격변하는 시대 상황에서 새로운 각오로, 조합원에게 많은 결실을 되돌려 주는

집행부를 완성해 가자”고 강조했다.

더불어 새롭게 직무를 변경하게 된 기존 간부들에게도 “현장 없이는 회사는 물론 노동조합도 무의미 하므로 집행부 하반기로 갈수록 현장과 조합원께 더 깊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며 “년차가 쌓일수록 안주하고 관행적으로 움직이던 타성에서 벗어나 항상 연구하고 발로 뛰는 자세를 견지하라”고 주문했다.

한편 중앙상무집행위원 임명 및 인사개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중앙상무집행위원 개편 인선 내역 -

▲사무처

- 최민주 : 복지기획국장
- 목현경 : 복지운영국장

▲조직처

- 조직기획국장 : 박충범
- 조직국장 : 정차석
- 쟁의국장 : 김모상
- 여성국장 : 김민서

▲정책실

- 기술정책국장 : 김민수
- 편집국장 : 박항서